

현대 중국의 대전략 변화 고찰

-신 중국 성립 이후 역대 영도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최 경 식*

목 차

- 1 서론
2. 모택동시대의 대전략(大戰略)
3. 덩소평시대의 대전략(大戰略)
- 4 현 영도체제의 대전략(大戰略)
- 5 결론

1. 서론

오늘날 중국의 대외업무(對外業務)나, 국내정치 및 경제성장 전망, 중국의 장래와 영향 등 우리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현안문제를 담론(談論)할 때, 중국전문가들 가운데서 일부는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중국의 전략이나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단견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극동대학교 중국어학과 중국학 교수, 중국민족학 전공

중국은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의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시행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아직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이 남아있고, 위정자(爲政者)들은 당(黨)에서 선발·양육되어 그들에게로 권력이 대물림되며,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도 시대에 따라 약간의 수정만 가한 채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나 ‘모택동사망’, ‘사인방(四人幫)숙청’과 같은 권력의 지각을 변동시키는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영도층(領導層)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중국의 전략이나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현대 중국의 장기적인 비전 즉, 중국의 대전략(大戰略)¹⁾이며,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하고 분석을 통해야만 중국에 대처하는 해답이 얻을 수 있다.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대전략(大戰略)은 등장인물과 시대에 따라 변동의 폭은 컸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49년 이후 중국의 시대를 크게 모택동(毛澤東)시대, 등소평(鄧小平)시대, 제3대 및 제4대 집단영도체제(集團領導體制)시대로 구분해서 고찰했다.²⁾

모택동시대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탄생하면서부터 중국이 개혁개방되기 전까지이며, 이 시대는 모택동 일인에 의해 전 중국이 좌지우지 되었던 시대다.

모택동 사후, ‘개혁·개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을 ‘정치대국

- 1) 대전략(大戰略)은 각종 전략을 총괄하는 방대한 전략체계로서, 각종 전략의 상위개념이며, 국가의 비교적 장기적이고 웅대한 목표이다
- 2) 중국의 ‘영도집체체제(領導集體體制)’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집단지도체제 또는 집단영도체제(集團領導體制)인데 중국에서 말하는 ‘영도(領導)’는 우리의 ‘지도(指導)’와는 다르게 아주 포괄적이다. ‘지휘(指揮)’와 ‘통솔(統率)’ ‘선두에 서서 이끄는 뜻’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집단지도체제’ 대신에 ‘집단영도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政治大國)’에서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변모시킨 시대가 등소평의 시대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지칭되는 등소평은 모택동처럼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권력의 뒤편에서 중국을 조종하면서 포스트 등소평을 육성하였다

천안문 사태이후, 중국의 중앙 정단(政壇)에 등장한 강택민(江澤民)과 그의 뒤를 이은 호금도(胡錦濤)시대는 바로 등소평에 의해서 양육된 ‘당의 후계자’들로써 충실한 ‘등소평주의자’들이다

중국의 대전략은 시대와 중국이 처한 국제적 위상,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모택동에서 등소평으로 넘어가는 시대는 정치상황의 급변으로 각 방면 전략의 변동의 폭은 컸었다. 이 두 시대는 모택동과 등소평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의해 국가 경영이 좌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등소평 이후 세대는 당(黨)을 통한 집단 사고(思考)와 집단 경영(經營)이 행해지고 있다.

필자는 이 두 인물의 언행과 집단 사고의 결정체인 중공 제15大와 제16大 보고를 통해 중국 대전략의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2. 모택동시대의 대전략(大戰略)

2.1 추월전략(追越戰略)

2.1.1. 모택동의 전략목표 및 대국(大國)에 필요한 시간

신 중국의 외교는 모택동의 외교구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모택동의 외교전략(外交戰略)은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며, 중국을 국제사회 가운데서 세계대국(世界大國)의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외교를 군사작전과 같이 ‘유리한 위치에서 파죽지세(破竹之勢)’(모택동 외교문선, 1991:358)로 투쟁 할 것을 지시했다. 신 중국 성립 후, 모택동은 중요한 외교활동을 직접 주도했다. 그가 시행한 가장 중대한 외교적 결책(決策)은 바로 소련의 영향에서 탈피하는 것과 중·미 양국의 관계개선이었다.

1954년 모택동은 “우리 인민은 열심히 노력하여, 몇 차례의 5개년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된 우리 국가를 산업화되고 고도로 현대화 된 위대한 국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1956년 11월 12일, 모택동은 정치국회의에서 “세계를 향하여 중국은 ‘세계의 대국’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장차 강대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변해야 한다. 중국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960만 km²의 국토와 6억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류에 대해서 공헌을 해야 한다. 이런 공헌은 과거 오랜 기간 너무 적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겸허해야 하며, 현재도 45년 이후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영원히 이렇게 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 교류에서 단호히, 철저히, 깨끗하게 대국주의(大國主義)를 전부 소멸해야 한다.”(건국 이래의 모택동 문고, 1991.241-242) 라고 천명했

다 그는 또 “중국이 부강한 국가로 변하려면, 50년이나 또는 100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재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대국(大國)으로 그의 인구는 전 세계의 1/4을 점하고 있으나, 중국이 인류에 대한 공헌은 인구 비례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택동은 중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 즉 미국과 영국을 초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모택동의 기본사상은 서구 열강이 몇 세기의 노력 끝에 비로소 오늘날의 부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은 50~100년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택동이 내건 중국의 **대전략 목표**는 중국을 ‘세계대국(世界大國)’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며,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은 50~100년으로 보았다. 50~100년이란 시간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거 산출된 시간이 아니라, ‘수 세기’보다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택동 치세기간에 이 ‘50~100년’의 시간은 수시로 변동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5년’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산업혁명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이룩한 영국과 미국의 부(富)를 빈곤·낙후된 중국이 1세기 안에 따라잡아 ‘세계대국’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조급함이 ‘추월전략(追越戰略)’을 수립하게 했으며, 이후 계획경제의 초기 만족이 ‘공산사회’로 급선화하는 전략적 착오를 범했다

2.1.2. 모택동의 추월전략(追越戰略)

모택동이 근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은 “낙후되면 곧 얻어맞게 된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세계의 대국(大國)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과 영국을 추월해야 한다 속도(速度)가 모든 것이다.” 이것은 모택동이 대내적으로 중국의 경제건설을 지도하는 방침이고 전략이었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모택동은 소련을 배우고 소련이 이룩

한 각 방면의 경험을 도입했다 산업은 먼저 중공업 위주로 발전시켰다 중앙집권적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자본을 축적하였고,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였으며, 국방전략의 의의를 지닌 기초공업과 군수공업을 중점 건설하였다. 반면에 인민의 생활과 관련된 경공업이나 농업은 낙후되어 인민의 생활의 질은 갈수록 떨어졌다.³⁾

계획경제 초기에, 중국은 소련의 원조 아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고, 국민경제를 신속히 부흥시켰다. 특히 중국은 60~70년대 소련의 핵 기술과 핵과학자들이 철수한 가운데서도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의 연구 제작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방력을 한 단계 제고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초기의 성과는 모택동으로 하여금 과대망상과 자신의 전략에 대한 맹신을 가져오게 하여, 중국사회를 성급히 ‘공산사회(共產社會)’로 개조를 시도하면서 중국전체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1958년 5월 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중공 제8기 2차 중앙전원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사상전선(思想戰線)과 정치전선(政治戰線)상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극좌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모택동은 “의욕을 북돋우고[鼓足干劲], 보다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를 힘써[力爭上游], 더 많게 더 빨리 더 좋게 더 절약하여[多快好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는 총노선(總路線)을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이어서 대약진(大躍進)을 주장하였으며, 농촌에 인민공사(人民公

3) 중국은 사회주의 개조 후, 국민경제의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1956년을 1952년과 비교했을 때,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경제 비율은 19.1%에서 32.2%,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 경제는 15%에서 53.4%, 공사합영(公私合營) 경제는 0.7%에서 7.3%로 높아져, 삼자(三者)를 합쳤을 경우 사회주의공유제(社會主義公有制) 경제는 이미 국민경제의 93%에 달했다 사회주의 개조 전에 다종(多種) 경제 성분이 병존하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경제는 이미 공유제(公有制) 경제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됨으로써, 사회주의(社會主義) 사회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社)⁴⁾를 설치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중공은 5년을 상회하는 시점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을 상회하는 시점에 미국을 초월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걸고, 제2차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건국초기에 모택동이 50~100년간을 ‘간고분투(艱苦奮鬥)’해야 선진국 대열 진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 비하면 아주 비현실적인 결정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전역에는 ‘강철 만들기’와 ‘삼면홍기(三面紅旗 총노선·대약진·인민공사)’가 중국 전 사회를 흔들었고, 중국공산당 내에는 극좌(極左)의 모험주의(冒險主義)가 넘쳐흘렀다.

1959년 7월 여산(廬山)에서 열린 중공 제8기 8중 전회에서 모택동은 자신을 좌경모험주의라고 비판한 팡덕회(彭德懷)를 ‘우경 기회주의 집단’으로 몰아 숙청하고, 대약진을 더욱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고지표(高指標)·할지휘(瞎指揮)·부과풍(浮誇風)·명령풍(命令風)이라는 ‘공산풍(共產風)’이 더욱 맹렬해졌으며,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는 갈수록 도가 더해갔다

이 시기는 중국공산당이 내건 총노선(總路線)에 규정된 임무, 즉 농업 수공업·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사회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론과 사상의 준비되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 이 방면에서 성공했던 경험의 부족했던 관계로 모범을 삼을 만한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중공의 지도사상이 국내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으로 만 지향되는 심각한 실수, 국가업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공상주의(空想主義)적인 관점과 이론, 극좌노선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었다

‘3년의 대기근’으로 삼천만 명이 아사(餓死)하고 극좌노선이 중국 경제를 도탄에 빠트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자, 중공 영도층(領導

4) 인민공사(人民公社)란, 정사합일(政社合一)의 농촌조직으로써, 1958년 8월, 전국 74만 개의 고급사(高級社)를 통합하여 2만 6천 개의 인민공사로 개조하였다 이 조직은 인민공사(人民公社), 생산대대(生產大隊), 생산대(生產隊)로 이루어지는 삼급(三級)소유제를 채택하였음 인민공사는 정사합일의 주체였고, 생산대대는 소유권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대는 기본 계산단위였음

層), 그중에서도 유소기(劉少奇)와 등소평(鄧小平)이 주축이 된 당권파(黨權派)들은 연착륙을 제기하고, 경제구조의 재조정엔 나섰으나, 이때 이미 싹트기 시작한 개인숭배(個人崇拜)와 모택동(毛澤東)의 권력욕으로 인하여, 당시로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던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계급의 독재 하에 혁명을 계속’하는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으로 인해 철저히 폐기되었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목적은 자본주의 부활을 차단하고, 공산주의의 순결성을 보호하며, 이상적인 사회·정치·경제모형을 실현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3년 대기근’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해진 모택동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 시킨 유소기(劉少奇)·등소평(鄧小平) 등 소위 ‘주자파(走資派)’를 숙청하기 위한 것 이었다

다음은 모택동 사후(死後) 중양 정단에 등장한 등소평은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결의>에서 모택동의 추월 전략으로 대표되는 실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경험 부족, 경제발전의 규칙과 중국경제의 기본 정황에 대한 인식 부족에 겹쳐, 모택동(毛澤東)과 중양 및 지방의 적지 않은 동지들이 초기 성공으로 교만해져, 성급하게 그리고 주관적 의지와 주관적 노력을 과대하게 행사함으로써, 경제 분야에는 일찍부터 좌경(左傾) 사상이 출현했고, 이어 이 경향이 아주 심각해져, 경제는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정치사상과 문화 분야에서도 전당(全黨) 규모로 전개된 정풍운동이 반 우파투쟁으로 변질되었고, 좌경사상이 이에 편승하여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이런 정황은 적시적(適時的)인 시정조치 없이 계속 발전되어 아주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모택동의 ‘추월전략’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실패로 끝났지만, 모택동 치세기간 내내 이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2.2 대외전략(對外戰略)

2.2.1. 독립(獨立)·자주(自主)와 동맹전략(同盟戰略)

모택동의 외교사상 가운데서 기본적인 특징은 중대한 문제에서 반드시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독립과 자주’를 견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기존의 동맹관계나 정치적 관계를 포기하기도 했다. 60년대 소련이 중국의 자주권을 간섭하자 모택동은 서서히 소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마침내 건국 초기 소련 일변도의 동맹전략을 포기했다. 70년대, 소련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되자,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때도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면서,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었다.

모택동은 독립·자주전략과 동시에 동맹전략(同盟戰略)도 병행했다. 중국은 차례로 소련,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국가, 미국 등과 공식 또는 비공식의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주요 적국에 대해서 반대했다. 주요 동맹 또는 연맹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변도(一邊倒)전략(中蘇同盟과 反美 1949~1957년)

건국 전과 건국 초기, 모택동은 대소(對蘇) 일변도(一邊倒)전략을 실행했다. 그는 신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소(美蘇) 양국과의 균형 외교는 불가하다고 인식했다. 당시 실제 상황도 중국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었고, 미국도 신 중국에 대해서 적대정책(敵對政策)을 취하면서 대만을 지지하고 있었다. 만약 당시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귀중한 경험 교훈 그리고 원조와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미국의 위협으로 인하여 신 중국의 독립적인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전쟁 참전도 일변도전

략의 일환이었으며, 소련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기 위한 소련의 대리전(代理戰)이었다.

나 양선전략(兩線戰略 . 미국과 소련 동시 반대, 1958~1968년)

이 전략의 중심은 제2세계 국가와 개발도상국가가 연합하여 미소(美蘇) 양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일명 ‘중간지대(中間地帶)’ 또는 ‘제3세계’ 전략이라고도 한다 이 양선전략의 중심사상은 국제적으로 단결 가능한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중국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미국과도 불편하여, 미소 양국과 동시에 적대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 미국을 대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차별을 두었다. 1958~1963년까지 중국은 소련과는 표면상으로 우호적이었고 미국과는 완전한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64~1969년 사이에는 중·소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중·소 국경 상에서 무력충돌이 빈발하자, 모택동은 소련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중국은 비록 미국, 소련과 동시에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으나 그 심각성의 무게는 소련 쪽에 더 두었다.

다. 일편일선(一片一線)전략(聯美反蘇 : 1969~1976년)

1969년, 중국과 소련사이에 진보도(珍寶島)에서 대규모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실제적으로는 소규모의 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은 중·소(中蘇)와 중 몽(中·蒙) 국경지역에 백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다 모택동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전략을 재조정하였다. 즉 소련을 제1의 적으로 간주하고 여전히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으나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1973년 2월 17일 모택동은 미 국무장관 키신저를 만나 일선사상(一線思想反蘇)을 제기하고, 1974년 1월 5일 일본의 오오히라 외상을 만나 일편사상(一片思想·미국 서구와 연합)을 제기했다. 이로써 미국·서구국가와 연합하여 소련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전략이 형성되었다

2.2.2. 주변환경(周邊環境)전략

모택동은 중국이 세계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들과 반드시 평화·우호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택동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분석했다. 모택동은 그 이유를 “미국은 방어선을 남조선, 대만, 인도차이나를 연하는 선으로 구축했으며, 이 선은 미국에서는 멀고, 우리와는 아주 가깝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잠들 수 없게 한다”(모택동 외교문선, 1991:165)라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은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주변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중국의 북쪽방면과 서남쪽방면, 동쪽방면이 그것이며 모두 상이한 정세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이 가장 관심을 둔 방향은 동쪽 일본방면이었다(葉自成, 중국의 대전략, 2003 27). 이는 모택동이 1957년 버마 사회당 당수를 만나 담화하는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인도,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는 우호 인접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남부에서는 안심하고 있다. 북부도 맘을 놓는다. 소련과 조선, 몽고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려하는 곳이 동부다. 당연히 우리는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홍콩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미국이 이 지역을 이용하여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 우리의 해안선은 길다 12만km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안방어에 유의하고 있다. 우리는 서남부에 군대를 많이 두지 않는다.”(모택동 외교문선, 1991 302-303)

1959년 5월, 중인(中印)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모택동은 중국과 인도(印度) 사이에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써 인도(印度)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이는 양면에 적대세력을 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시종 지정학적 중점을 동쪽방면, 즉 미국과 일본, 그중에서도 ‘미 제국주의’에 두었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구도에 관한 기본국책이 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의 이 지정학적 전략은 60년대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은 동·서·남·북 네 개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문화대혁명’ 때는 ‘중국 혁명의 수출’과 소수민족의 모국 유입⁵⁾을 우려한 주변국가와 중국 사이에 긴장상태가 지속되었고, 이 주변환경의 불안은 중국의 국내건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소련 외에 모택동이 중시하는 주변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줄곧 중국을 반대한다면 중국의 중요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일본국민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모택동의 주변전략 중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모택동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였다. “우리 사이에 사회제도가 비록 일치하지 않으나 이것이 우리의 상호존중과 우의를 방해하지 않는다. 과거 문제도 우리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오늘의 제도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실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장래의 문제다.”(모택동 외교문선, 1991 222-223) 일본의 전쟁 배상 문제에서도 모택동은 비교적 관대했으며, ‘상호협조, 상호교통, 평화우호, 문화교류, 관계정상화 수립’의 방침을 견지하였고, 일본과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1972년 중일관계는 정상화 되었다.

5) 중국 내 소수민족은 중국의 정정(政情)이 불안할 때마다 모국으로 이주하는 양태를 보였다. 1959년 봄에는 길림성 구태시 흥광촌의 조선족 24가구가 북한으로 이주하였고, 1960년에는 운남성 남쪽 국경지역의 태족 경족 등 10만 명이 월경하여 버마로 이주하였으며, 1962년~1963년에는 신장 이탑지구의 하자크족이 월경하여 지금의 하자크스탄으로 이주하였다.

다음은 영토문제에 있어서, 모택동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절대 수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국과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영토분쟁 시, 중국이 취하는 원칙은 쌍방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해결 불가능한 부분은 남겨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 사이에 이런 원칙 하에서 중국은 버마, 네팔, 몽고,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순조롭게 국경문제를 해결하였다.

화교정책(華僑政策)에 대해서, 모택동은 화교의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강조하였다. 1954년 10월 모택동은 “화교문제는 해 지역에서 해결해야 만, 일부 국가에서 주장하는 중국이 화교의 소란을 이용하고 있다는 책망을 면할 수 있다. 만약 화교가 교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해 지역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해 지역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해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화교는 반드시 해 지역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모택동 외교문선, 1991 175-176) 중국의 화교정책에 대한 일부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택동은 동남아 제국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중국은 화인(華人)⁶⁾이나 화교(華僑)는 모두 해 국가의 법을 준수하기를 희망하며 이중국적(二重國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택동 치세 기간에는 요즘 중국이 내세우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은 달성하지 못했다. 모택동이 주장한 상기 내용도 결국 ‘계급투쟁’과 ‘성급한 공산사회 달성’, ‘문화대혁명’ 등으로, 중국의 ‘혁명수출’을 우려한 주변국가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가 적대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6) 화인(華人)은 중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거주국의 국적을 가진 중국계 주민을 말하며, 화교(華僑)는 거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 교민을 말한다.

2.2.3. 대만·홍콩·마카오문제에 대한 처리 전략

중국은 대만·홍콩·마카오문제에 대한 처리를 중국의 국내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건국 초기,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臺灣解放)’은 줄곧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대만해방’의 기회를 상실했고, 1954년 미국과 대만 사이에 <공동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은 요원해졌다. 이것이 모택동의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평화적 해결’로 바뀌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56년 1월, 모택동은 대만의 평화적 해결 방침을 제시했다. “전쟁이란 방식으로 대만을 해방하는 것 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해결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대륙인민과 대만인민이 공동의 애국적 책임을 가질 수 있다”(葉自成, 중국의 대전략, 2004:33) 평화적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모택동은 대만이 미국과 관계를 단절해야 하며 대만이 대륙과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대만은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시행하고, 대륙은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등소평이 주창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근간이 되기는 했으나, 당시로선 전쟁이란 방식이 어렵게 되자 통전공작의 일환인 ‘평화이행(平和移行)’이란 수단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홍콩과 마카오문제에서도 모택동은 평화적인 해결의 의도를 나타내었다. 국공내전(國共內戰) 승리 초기에 신 중국은 중국 내의 제국주의 잔재 일체를 소멸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홍콩과 마카오문제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모택동은 홍콩이 국공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였고, 또한 무력에 의한 홍콩 점수가 정치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고 여기고 그들의 원래의 지위를 인정했다. 다음

으로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해외관계 발전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영국정부의 중국 승인문제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하여, 1949년 10월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이 홍콩·마카오 접경지역에 도달했을 때, 무력으로 홍콩·마카오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했고, 얼마 후 군중혁명으로도 홍콩의 현상을 전복하지 않음을 밝혔다.

당시 모택동은 홍콩 마카오문제에서 두 가지를 고려했었다. 하나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시행하는 상태 하에서 홍콩과 마카오가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봉쇄를 푸는데 유리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외자와 기술 인력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3 내치(內治)와 군비전략(軍備戰略)

2.3.1. 평화건설과 전쟁준비

모택동이 중국을 세계대국화(世界大國化)하기 위해, 중국을 재건할 당시는 전쟁의 초연이 끊이지 않은 시기였다. 모택동은 이 시대를 전쟁 또는 혁명의 시기인지, 평화건설의 시기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 그의 언행을 미루어 보면 평화건설과 전쟁준비가 그의 정서에 따라 교차되어 나타났었다.

신 중국이 탄생한 후, 비록 미국과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놓여 있긴 했지만, 한때 모택동은 세계정세를 “세계대전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나, 진정으로 발생하기는 힘들다. 세계의 인민이 제국주의의 전쟁 발동을 억제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1950년 6월, 모택동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제국주의 진영의 전쟁 위협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방지하려는 투쟁역량의 발전이 아주 신속하므로, 새로운 세계전쟁은 억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모택동은 세계평화 달성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평화공존(平和共存) 5개항 원칙’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중소관계가 긴장하고 국경지역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전쟁위험 상존’이 ‘전쟁 직접 위협’으로 모택동에게 인식되었다. 모택동은 새로운 세계혁명의 물결이 나타나 중국에 대한 전쟁의 압력과 위협을 완화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이 시기에 혁명과 전쟁은 모택동사상(毛澤東思想)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즉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世界大戰不可避論)”라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각국 혁명가들이 혁명을 통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 모택동의 주된 외교전략이 되었다

전쟁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상황 하에서, 모택동은 혁명외교전략을 수립했다. 그 기본 내용은 세계 각국 인민의·혁명투쟁을 지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촉진함으로써, 전쟁의 발발을 연기시키거나, 혁명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거나, 혁명을 통해 평화를 획득한다는 전략이었다.

평화건설과 전쟁준비 병존의 전략은 중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이 당시 평화적인 환경을 이용하여 대규모 국내건설을 전개하여 중국의 종합국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자원을 전쟁준비에 투입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었고, 무리하게 군수공업 위주의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기업들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간벽지로 이동 소산했으며, 중국 도처에 질 낮은 방공호와 참호를 구축하는 등 인력과 노력을 낭비함으로써 경제부흥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는 호전적인 국가로 낙인찍혀 국제적인 고립을 면치 못했었다

2.3.2. 두개의 체제와 자력갱생(自力更生)전략

중국은 세계 사회주의의 중요한 국가로 자처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와 항상 갈등하고 투쟁했다. 당시 전통적인 사회주의 관점은 세계를 평행하고 독립된 두 개의 체제, 즉 이분법적(二分法的) 논리로 보았다. 하나는 사회주의(社會主義) 체제요,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였다.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신하게 되어 있다. 비록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와 평화공존 할 수 있고 중국도 자본주의의 성과와 경험을 배울 수는 있었으나 중국이 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세계체제에 가입 또는 융화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세계대국이면서도 주로 자력갱생(自力更生)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모택동은 1956년 6월, “중국의 혁명과 중국의 건설은 모두 중국인민 스스로의 역량을 주(主), 외국의 원조와 지원을 보(補)로 한다. 그런 믿음을 상실하면, 스스로는 무엇이든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중국의 운명을 중국인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사상은 완전히 잘못이다”라고 피력했다.(모택동의 교문선, 1991 78)

모택동은 독립 자주를 유지하면서 외국의 원조를 획득해서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관점은 일관되었다. 당시 중국은 혁명과 건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외국의 원조는 주로 당시 소련 등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이긴 했지만 중국혁명과 중국건설을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의 원조를 획득해야 하나, 그 시기와 상황은 중국 자신이 장악한 상태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점(基本点)을 중국 자신의 역량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모택동이 1956년을 전후해서 대외개방(對外開放)을 피력했으나, 실제로는 폐쇄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의 시스템과

는 완전히 유리되었다 이런 일체의 문제는 국내의 정치적 문제, 정확히는 권력 장악문제와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등소평 시대의 대전략(大戰略)

3.1. 등소평(鄧小平)의 전략 관점

등소평(鄧小平)은 모택동(毛澤東)의 세계대국(世界大國)전략을 계승하고 수정, 발전시킨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등소평은 모택동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적이 없고, 여러 차례의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면서 자력으로 모택동 다음 세대인 중국의 ‘제2대 영도집단’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가운데서 시대의 조류를 파악하고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중국을 국제구도 속에서 명실공히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했다 그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거의 동일한 시대에 개혁을 주도했으나 양자의 전략의 차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속의 강자’로, 소련으로 하여금 해체되어 세계의 빈국(貧國)으로 전략하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의 전략구상과 실천은 아주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등소평은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제3세계 국가 중의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등소평은 중국을 영원히 제3세계 국가 중의 하나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등소평은 중국을 개발도상국가에서 탈피하여 세계의 대국이 되어야 하며 이 대국(大國)은 정치대국 뿐만 아니라, 경제대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1984년 등소평은 ‘삼보주전략(三步走戰略 : 3단계 발전전략)’⁷⁾

이라 칭해지는 중국의 현대화전략을 제시했다. 이 삼보주전략은 제3대 영도집단과 제4대 영도집단체제 들어와서 다소 수정 보완되었으며, 이 전략의 근본적인 목표는 20세기 말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⁸⁾를 이룩하고, 다시 50년간의 분투노력으로 2050년경에 **현대화**를 이룩하여 **중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2050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지 대략100년이 되는 해이며, 모택동이 말한 ‘50~100년에 걸친 분투노력’과는 시기적으로 비슷하나 발상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

등소평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시, “중국은 100년간의 노력으로 중진국에 들어선 후, 다시 계속 노력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되어야 한다.”(등소평시대의 중국, 1996 1798-1799)라고 중국의 국제지위 상의 최종목표를 제시했다.

등소평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철학으로 세계정세의 변화를 관찰한 후, ‘평화(平和)와 발전(發展)’이 현 시대의 양대 테마라고 간주하고 세계 정치·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주장하였다. 등소평의 외교전략 가운데 백미(白眉)라 할 수 있는 것은 세계발전의 조류와 새로운 정세에 기초한 대외개방(對外開放)전략과 현실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통일방안, 개방의 환경과 냉전 종식 후 급변하는 세계구도 가운데서 중국이 독립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비동맹(非同盟) 외교전략이었다.

7) 3단계 발전 전략<三步走發展目標>은 최초 등소평이 구상되었으며, 제3대 영도집단에 의해서 일부 수정되었다 내용은 2010년까지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며, 2020년까지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완비하고, 2050년까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달성하고 더욱 부강(富強)되고 민주, 문명된 사회주의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속내는 종합 국력에서 2020년까지 일본을 추월하고, 2050년까지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8) 소강사회(小康社會) 小康은 중국의 고전 시경(詩經)에 “民亦勞止, 汙可小康”에서 나온다 여기서 小康은 힘이 드니 ‘쉬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小康의 뜻은 바뀌어 왔다 중국의 유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大同)이라 하고 그 중간 과정을 小康이라 했다 현재의 뜻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초보적인 복지사회를 말한다

3.2. 등소평의 대외전략(對外戰略)

3.2.1. 평화·발전전략

‘평화(平和)·발전전략(發展戰略)’은 등소평 외교의 일반전략인 동시에 글로벌전략이다 또한 이것은 등소평 전략 체계 중에서 가장 상위의 개념이며 장기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1985년 등소평은 중국의 글로벌적인 전략문제를 제시했다. 하나는 평화문제(平和問題)이며, 또 하나는 경제문제(經濟問題) 또는 발전문제(發展問題)였다. 등소평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제전략이며, 1978년 말 중공 11기 3중 전회에서 제정한 목표 역시 글로벌전략에서 고려된 것이다.”⁹⁾라고 말했다. 그 이후부터 평화와 발전은 중국외교의 일반전략이 되었으며, 중국외교 전략 중에서 강령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장기간 다른 전략을 지배하고 제약하는 지위를 차지했다.

등소평의 언행을 종합해보면 그가 제기한 ‘평화(平和)’에는 다음 세 가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하나는 등소평의 평화개념은 세계정세 발전의 큰 흐름을 가리키는 기본 판단으로, 그는 “현 국제정세는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기간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여 국내 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등소평 문선 제3권, 1993:126-127)는 것이다

둘째, 등소평의 평화개념은 중국의 기본적인 대외전략이다 즉, 평화유지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주요하고도 장기적인 임무이다

셋째, 등소평의 평화개념은 중국외교의 영원한 목표이고, 일종의

9) 중공 11기 3중 전회는 등소평을 권력의 전면으로 나서도록한 회의였으며, 여기서 등소평은 유명한 ‘思想解放, 開動腦筋,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이란 구호를 내걸고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였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은 바로 이 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상(理想)이며, 최종적으로 ‘평화와 발전’이라는 체계로 구현되고 있다

등소평이 말하는 ‘평화(平和)’와 ‘발전(發展)’은 상호 분리될 수 없다. 평화는 목표이면서 수단이고, 평화는 발전을 위해서이며, 발전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등소평은 1986년, “발전과 평화는 상호 관련이 있으며, 제3세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평화를 요구하게 된다 즉, 국제적인 평화환경 속에서 비로소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중국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어 “자신의 발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 중국의 정책은 전쟁과 평화문제, 남북(南北)의 경제 발전문제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등소평 시대의 중국, 1996:1068-1070)라고 피력했다.

평화의 개념과 같이 ‘발전’은 등소평의 외교사상 중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등소평의 발전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발전은 세계적인 큰 흐름이다 ② 발전은 세계적인 문제로 선진국과 선진국 사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개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③ 발전은 중국외교 전략의 일반전략이다.

3.2.2. 국제정치·경제 신질서 수립 전략

1974년 4월, 등소평은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수립에 관한 주장을 천명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평화공존 5개항 원칙’¹⁰⁾ 위에서 국가 간의 정치·경제 질서

10) 평화공존 5개항 원칙 중국이 1954년 6월 28일 중국-인도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되면서 세상에 나왔고, 그 내용은 주권과 영토 상호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이며, 이는 중국의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의 골간

를 수립해야 하며, 어느 지역에서든지 패권이나 자신의 세력 범위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각국의 사무(事務)는 각국 인민 자신이 결정한다. 개도국(開途國) 인민은 그들 자신의 사회, 경제제도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개도국은 자신의 자원(資源)을 향유하고 행사할 영원한 주권을 가진다

둘째, 국제경제 사무는 국가의 대소와 빈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지, 한두 초강대국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도국은 세계무역과 화폐, 항운(航運) 등의 사무 결정에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은 호혜평등(互惠平等)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하며, 중국은 개도국이 그들의 원료와 일차상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무역여건 개선과 그들의 판매시장을 확대 및 개도국의 유리한 가격 책정 등을 지지한다.

넷째,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피 원조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하며,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개도국에 대해서 우대차관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하고, 이자 환불도 연기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는 개도국에 대해서 더 많은 기술 원조를 해야 한다.

1988년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소련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덩소평은 기회 있는 데로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의 신질서 수립과 ‘남북문제 해결’을 표명하였다. 특히 덩소평이 말하는 ‘국제정치’의 신질서’는 바로 패권주의의 종식과 ‘평화공존 5개항’

이 되었다

을 실행하는 것을 뜻했다 등소평은 ‘평화공존 5개항’ 중에서도 상호 내정 불간섭을 가장 중요시했다 바로 이 부분은 중국의 ‘등소평식 사회주의’가 생존해서 중국이 부강해지느냐는 기로에서 다른 강대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등소평은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신질서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홍콩과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국가 간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먼저 주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개발’ 할 것을 강조했다.

결국 ‘평화’는 중국이 발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고, 발전할 시간을 마련해주며,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의 신질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2.3. 반(反) 패권(霸權), 다극화(多極化) 전략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등소평은 위기를 호기로 바꾸기 위해 신질서 수립을 주장하고, 이 신질서 수립이 바로 반(反) 패권주의(霸權主義)라고 강조했다. “패권주의도 마땅히 종식되어야 한다. 전 지구상의 패권주의뿐만 아니라, 지역 패권주의도 없어야 한다 …신 정치질서는 바로 패권주의를 종식하는 것이다. .. 반 패권주의는 어떤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자면 누구든지 반대한다. 만약 우리가 패권을 추구하면 우리도 우리자신을 반대한다” 등소평의 반패권주의 역시 ‘평화공존 5개항’과 연관되어 있다.

등소평은 다극화(多極化)를 이룸으로써 초강대국(미국을 지칭)의 세계적인 패권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소평은 1990년 3월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과거의 구도는 이미 끝나고, 새로운 구도가 정해졌는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도 각종 의견이 있다…현재 낡은 구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구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미소(美蘇)가 독점하던 상황은 변화 중에 있다 세계의 구도는 3극(極)도 좋고, 4극(極)도 좋다. 소련은 다극화 중의 하나다. 소련이 어떻게 약화된 간에 심지어 몇 개의 공화국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소위 다극화를 말하면 중국도 하나의 극(極)이다 중국은 자신을 폄하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한 극(極)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등소평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다극화가 세계구도 발전의 큰 흐름이다 금후의 국제 신질서는 강대국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한편, 더욱 중요한 것은 소수(少數)국가 국제사무의 일체를 독점하는 구도를 타파하고, 세계 각 주요 국가가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극화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흐름으로,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등소평은 다극화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극화는 90년대 초에 막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으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다극화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다극화 중에 러시아의 자리는 있겠으나 과거 소련과 비교해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겠는 가? 다극화 구조는 어떤 종류의 다극화인가? 등소평은 구체적으로 3극, 4극, 5극의 다극화를 제시했다 몇 개의 극(極) 중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국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다극화에는 상기 국가들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브라질, 아세안(ASEAN) 등 발전 잠재력을 가진 국가도 포함된다. 또한 다극화 가운데 이들 힘의 중심 국가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가? 다극화된 강대국의 역할과 나머지 중소국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이 연구의 대상이라고 등소평은 강조했다

셋째, 중국은 다극화 구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등소평은 중국을 다극화의 한 축으로, 과거 양극체제에서 속에서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강조했다. 즉 유소작위(有所作爲)를 강조했다.

결국 등소평의 다극화(多極化)전략은 일초다강(一超多強)의 구도를 타파하고 과거 소련의 자리를 중국이 대신하면서 미국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문제에 간여해야겠다는 전략이며, 이 다극화 전략은 등소평 이후 세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3.2.4. 독립·자주와 비동맹(非同盟) 전략

등소평은 1982년 8월, “중국은 반드시 독립·자주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각국이 비동맹 외교전략과 비동맹정책을 시행한다면 세계의 평화에 더욱 유리하며, 동시에 세계는 이미 각 대륙별로 독립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것은 바로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독립·자주 외교전략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등소평 외교학습강요, 2000.450)

등소평의 독립·자주 외교전략은 ‘사비일전(四非一全)’, 즉 제3국에 대해서 ‘비동맹(非同盟), 비고립(非孤立), 비대항(非對抗), 비기준(非照準)을 하는 전방위 외교활동’을 말한다.

등소평이 제기한 비동맹 외교전략의 핵심은 바로 중국이 어떤 형식의 블록화 정치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동맹 외교전략은 과거의 연소전략(聯蘇戰略)이나 연미전략(聯美戰略)과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먼저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등소평은 “중국은 독립 자주 외교전략의 지도 하에 미국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고, …제3세계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일본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등소평 시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실제로 미소 등 강대국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나고 있었다 과거 미국과 시행하던 실질적인 준 동

맹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조정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 변화와 중국에 대한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소련과는 실질적인 적대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쌍무관계(雙務關係)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데 필요했다. 유럽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서 패권주의에 반대를 기초로 하는 더욱 긴밀한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중국의 ‘비동맹 외교전략’은 ‘독립·자주 외교전략’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음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격상시키고, 국제문제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3.3 등소평의 내치전략(內治戰略)

3.3.1. 개방전략(開放戰略)

등소평은 ‘개방(開放)’문제를 ‘하나의 전략문제’이며, ‘평화공존 5개항 원칙’ 기초 위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경제·문화관계를 수립하는 기본으로 인식했다. “만약 본 세기 내에 우리가 개방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음 세기 50년 내에 중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을 버릴 수 없다. 만약 개방정책이 다음 세기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50년은 우리의 국제적인 경제교류는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서로 의지하게 되며, 더욱 분리될 수 없어 개방정책은 영원할 것이다”(등소평 시대의 중국, 1996: 1068-1116)

등소평의 인식은, “현 세계는 개방의 세계다. 중국은 서방국가가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후부터 낙후되었다. 중요한 원인은 쇠국(鎖國)이다. 건국 이후, 다른 나라가 우리를 봉쇄했다. 어느 정도는 우리

도 문을 닫아걸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30 몇 년의 경험과 교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닫아걸면 건설도 안 되고 발전도 못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은 모두 개방으로 시작되고, 서방국가는 자금과 기술상에서 모두 융합되어 있고, 교류하고 있다 ...현재의 어느 국가든지 문을 닫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의 옛 조상들도 이런 고통을 겪었다 아마도 명대(明代) 때, 정화(鄭和)¹¹⁾가 해양을 순양할 때는 개방되었을 것이다. 명(明) 성조(成祖) 이후, 명(明)은 점점 쇠락해졌다 이후 청조(淸朝) 강건시대(康乾時代 강희제와 건륭제 시대)도 개방이라 말 할 수 없다 만약 명조부터 계산한다면, 아편전쟁까지 300년 동안 문을 닫았다. 만약 강희제부터 계산한다면 역시 200년간이다. 장기적인 쇠국은 중국을 가난하고 우매한 국가로 만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제1차 5개년 계획 시행기간은 개방되었으나, 단지 소련과 동 유럽에 대해서 만이었다. 이후 또 문을 닫았다 조금의 성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발전이 없었다 당연히 내·외적인 잘못이 많이 있었다. ...역사의 경험과 교훈은 설명한다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발전을 도모하려면, 빈곤과 낙후를 탈피하려면, 개방해야 한다 개방은 국제간의 교류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의 경험도 흡수한다”(등소평 문선, 1993 266-367)이었다.

중공 당 중앙은 1984년부터 대외개방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조치’로 결정했다. 중국은 대외개방으로 인한 대외무역이 중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점하였고, 중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외개방이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지역이 중국의 현대화가 가장 빨리 진척된 곳이며, 경제가 가

11) 정화(鄭和)는 명 성조 때 사람으로 본래 환관이었으나 천성이 총명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음 1405년 음력 6월 정화는 62척의 선박에 27,800명의 인원을 대동하고 남양 군도와 인도양 항행하면서 뱃길을 개척하고, 각국과 문물을 교류하는 등 명의 위명을 천하에 알렸음 그는 28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원양 항행하면서 인도양 근해의 30여 개국을 방문하였으며, 가장 원거리는 아프리카 동안(東岸)까지 항행하였음

장 발달한 지역이고,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3.3.2. 대만·홍콩문제와 ‘일국양제(一國兩制)’전략

등소평의 ‘일국양제’전략은 등소평 통일전략의 핵심이다

이 전략은 다음 두 가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의 성과를 학습하고 거울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둘째, 만약 대만과 홍콩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이 국내에도 적용되는 케이스가 된다 즉, 통일전선전략이 ‘무력에서 평화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등소평의 ‘일국양제’구상은 처음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다 일찍이 1978년 11월 등소평은 버마 대통령과 담화 중에 “대만문제를 해결할 시, 우리는 대만의 현실을 존중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일부 제도는 바꿀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도, 그곳의 생활방식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은 해야 한다...미국은 대만에 계속 투자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얘기했다. 대만은 중국으로 귀환되어 조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는 대만의 현실을 존중하면서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만의 사회제도는 우리의 사회제도와 당연히 다르다. 대만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특수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978년 1월, 등소평은 미국 방문 기간, 미 상하 양원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만해방(臺灣解放)’이란 방법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대만이 조국으로 회귀

(回歸)만 한다면 우리는 그곳의 현실과 현행제도를 존중할 것이다.”(중국공산당 역정, 2001:49) 미국의 대만에 대한 특수 이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등소평은 대만총통 장경국(蔣經國) 사후(死後) 대만독립 세력의 대두를 무척 우려했다 대만독립 세력의 존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소평은 1985년 9월 평화적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되 무력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즉, ‘평화적 해결’과 ‘무력에 의한 해결’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았던 것이다 1982년 등소평은 영국 수상 대처를 만나 ‘일국양제’의 방법으로 홍콩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등소평의 ‘일국양제’의 개념은 1984년에 와서 구체화되었다 즉, ‘일개국가(一個國家) 양개제도(兩個制度)’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국대륙은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홍콩과 대만은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사회·정치·경제제도 면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개의 제도가 존재하나, 국가제도의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말한다.

중국이 지칭하는 ‘중앙(中央)과 지방(地方)’의 관계는 전체와 국부의 관계이지 연방제나 중앙집권제가 아니며, 양쪽의 장점을 살린 ‘중국식의 국가형식’을 말하고 있다 ‘일국양제’의 구상에 의해 중국은 1997년과 1999년 순조롭게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회수하여 대만문제 해결에서도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등소평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3. 정치·경제제도 개혁전략

등소평의 내치전략이 모택동의 것과 상이한 부분은, 모택동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을 시도한 반면, 등소평은 사회주의 자체의 개혁을 시행한 점이다 등소평은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

의'를 건설해야만 중국이 강대해질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전면적이고 심층 깊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개혁이란 사회주의 제도의 자아(自我) 개선인 동시에 심층 깊은 사회개혁을 말한다 사회개혁에는 농촌과 도시, 공업과 상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과 보험, 사회보장과 의료, 교육체제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말한다.

등소평은 “우리는 개혁을 일종의 혁명으로 간주해야 한다…개혁은 중국의 제2차 혁명이다 개혁은 중국이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라고 천명했다.

모택동시대 때 중국은 전통적인 고도로 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에 당·정(黨·政)이 분리되지 않았고, 당이 정부를 대신했으며, 처음에는 당 중앙, 나중에는 모택동 일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등소평은 이런 모순을 타파해야만 중국이 진정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등소평이 시행한 개혁의 골자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직된 이론 체계에서 사상(思想)을 해방(解放)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세웠다. 모든 것은 실천에서 출발하며, 이론은 실천으로 검증된 사상과 업무 방법만을 받아들였다.

둘째, 전통적인 공유제(公有制) 이론을 타파하고 공유제를 위주로 하되 다종의 소유제(所有制) 경제를 인정하였다.

셋째, 사회주의는 가능한 신속히 자본주의에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타파하고,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初級段階:자본주의를 지칭)를 거처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모든 성과를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분배제도 면에서 전통적인 평균주의와 ‘큰술 밥’체제를 타파하고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웠다

다섯째, 정치제도 개혁으로, 민주화와 법치주의 표방, 중앙과 지

방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권력을 하부로 이양했다. 또 당정기구 간소화, 기구개혁, 영도간부의 종신제 폐지, 간부의 연소화·지식화·전문화·혁명화 시행, 관료주의 특권화 현상을 타파했다.

여섯째, 모택동의 ‘무산계급 독재 하에 계속 혁명’이라는 계급투쟁의 중심 사상에서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일곱째, “가난하고 낙후한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정의했다.

여덟째, ‘취노구(臭老九)’¹²⁾에서 지식과 인재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등소평이 제정한 개혁개방전략은 바로 ‘사회주의 정치에 자본주의 경제’를 접목 시킨 것이며, 오직 경제발전에만 전 노력을 집중토록 하여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로 만들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였다

4. 현 영도체제¹³⁾의 대전략(大戰略)

4.1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위대한 대부흥 전략

등소평 이후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모택동과 등소평 시대 때의 전략목표였던 ‘세계 대국화(大國化)’가 이제는 중국의 범위

12) 취노구(臭老九)란 아홉 번째 낚새나는 늪이란 뜻으로 문화대혁명 당시 지식분자를 경멸하여 부른 명칭

13) 현 영도체제는 포스트 등소평으로 강택민을 정점으로 하는 제3세대와 호금도를 정점으로 하는 제4세대를 의미하며,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가 현 중국의 정책방향이다

를 벗어나는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위대(偉大)한 대부흥(大復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 전략은 모택동과 등소평 대전략의 연속이면서 그 대전략을 한 단계 제고시킨, 세계를 향한 중국의 자신 있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전략은 중공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중공 16大보고¹⁴⁾에서 강택민(江澤民)은 먼저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판단 보고했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현 시대의 테마이다.** 평화의 유지와 발전의 촉진, 각국인민과 관련되는 복지는 각국인민의 공통적인 염원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적 물결이기도 하다. 세계의 다극화(多極化)와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회와 유리한 여건을 가져다준다. 비교적 긴 시간의 평화와 국제환경, 양호한 주변 환경을 얻어내는 것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국제정세를 전망한 후,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제정치, 경제와 구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불확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소가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테러리즘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다 패권주의(霸權主義)와 강권주의(強權主義)가 새롭게 표현되고 있다. 민족 종교의 모순, 국경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국부적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남북(南北)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인류는 수많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국제정세를 평가했다. 결국 국제정세는 “총체적으로 화평하나, 국부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국부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총체

14) 16大보고 2002년 11월 8일, 중공 당서기 강택민은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이란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16大보고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당 대회(2007년 11월)가 열리기 전까지 중국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국부적으로 혼란”하며,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조류와 각국 인민의 뜻에 따르며,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 경제의 신질서를 적극 추진 구축한다.”(강택민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1998:523)

다음으로 16大보고의 중심어(中心語)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이었다 “전면적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이며, 중국공산당은 지금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실현할 장엄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다.”(소강사회 전면건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 개척, 2002:56-67)

등소평 시대 때,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세계대국으로 매진하는 신국면을 연다”라는 대전략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제창한 것은 과거 중화의 영광 재현(再現)과 함께 범(凡) 중화권(中華圈)을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 공동발전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 제1조도 종전의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라는 표현 대신,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바꾸었다.

여기에 등장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개념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을 한족(漢族)과 하나로 묶어 중화(中華)라는 틀 속에서 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문화대혁명 시절의 배타적인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쇼비니즘(chauvinism)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이 ‘중화민족(中華民族)’의 개념에는 세계 각국에 이주해있는 화인(華人)과 화교(華僑)를 망라하며, 싱가포르-홍콩-상해를 잇는 중화경제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제 풍운(風雲)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우리는 시종여일하게 독립자주(獨立自主)의 평화외교정책을 수행한다 중국의외교정책의

종지(宗旨)는 세계평화를 보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의 인민과 함께 세계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소강사회 전면건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 개척, 2002.70) 즉, ‘평화와 안정’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大復興)’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결요건이고, 중화부흥을 구체화 하는 장기적 전략은 바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發展目標>’이다.

중공 16大에서 밝힌 중국의 대외업무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獨立)· 자주(自主)· 평화(平和) 외교정책의 기초 아래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전 인류의 공동이익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서 세계의 다극화(多極化)를 추진하고, 여러 종류의 역량이 병존케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 공정 합리적인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상호존중 협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상호촉진 공동 발전, 문화적으로 공동번영, 안보상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

③ 세계의 다양성 즉 문명과 사회제도의 이질성을 존중 보호하며,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발전 모델의 다양화를 인정함으로써,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④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기초로 선진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제도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고려치 않고, 공통이익의 접합점(接合点)을 확대하여 분규를 원만히 해결한다

⑤ 제3세계와 단결 협력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인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 참여

하여 개발도상국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지한다.

⑥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도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발본색원하고, 테러활동을 예방하고 타격한다

이 16대보고를 5년 전의 15대보고¹⁵⁾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보고의 제목부터가 15대보고는 “등소평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21세기를 향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 추진하자!”였으나 16대보고는 “복지사회<小康社會>¹⁶⁾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열어나가자!”이다 즉 20세기까지는 ‘등소평이론’이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강택민의 3개대표 중요사상이 그 뒤를 이어감을 알 수 있다

국제정세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15대보고는 인권(人權)문제와 대만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도 군사충돌의 한 요인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16대보고에는 인권(人權)에 관한 표현이 자체되었으며, 15대보고에서 “사실 자체에 근거해서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어떠한 외래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어떠한 강대국 또는 국가집단의 동맹에 동의하지 않고, 군사블록 군비경쟁에 참여치 않으며, 군사적 확장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나라가 그들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었는데, 16대보고에서는 ‘인권’이라든지 ‘집단 동맹’, ‘군사블록’, ‘군비경쟁’이란 표현이 빠져있다. 단지 “영원히 패

15) 15대보고 있었던 1997년 10월은 강택민이 등소평의 수렴정정을 벗어나 친정체제를 확립하는 당 대회였으나 당시 중국은 등소평의 영혼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16) 小康社會 小康은 중국의 고전 시경(詩經)에 “民亦勞止, 汙可小康”에서 나온다 여기서 小康은 힘이 드니 ‘쉬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小康의 뜻은 바뀌어 왔다 중국의 유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大同이라 하고 그 중간 과정을 小康이라 했다 현재의 뜻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초보적인 복지사회를 말한다

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이미 집단동맹이나 군사블록이라든지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61년 북한과 체결한 ‘中朝友好合作 및 상호 원조 조약(군사력 자동개입 조항 포함)’은 아직까지 유효하며, ‘5개국 국경협약’에서 발전한 ‘상해 합작조직(合作組織)¹⁷⁾은 중국의 북방국가들과 신뢰강화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즉, 등소평시대 때의 ‘비동맹전략’이 수정·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9.11사태’ 이후, ‘천안문 사태’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신강(新疆)이나 티베트의 분리 독립운동을 테러리즘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를 진압하는데 서방제국의 인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과거의 도광양晦(韜光養晦),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수동적인 정책에서 무실구시(務實求是),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비교적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실제적 국력이 상승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른 완만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4.2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적(理想的)인 안보환경

중국 안보전략의 기본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쟁취하는 것이다.

17) 상해 합작조직(合作組織)은 “상해 5국”(1996.4.26 상해에서 조직)을 기초로 하여 2001년 6월 15일, “상해 합작조직” 결성을 선포 기존 5개국에서 중국 북부지역의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몽고 등이 참가하고 있음 이 조직은 중국이 주도로 조직한 최초의 국제조직임

3.2.1. 글로벌적 목표

중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억지능력, 즉 잠재적인 적대세력이 중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이익에 위협을 가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多極化)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를 ‘일초다강(一超多強)’¹⁸⁾으로 보고 있다 ‘다강(多強)’이 ‘일초(一超)’를 견제하여 다극화를 이루는 것이 중국이 바라는 세계질서 재편의 목표다. 중국은 다극화가 강대국 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최소한의 전략적 억지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의 다극화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의 다극화는 강대국 상호 간에 서로를 적대국으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히 안정적인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융통성을 가짐으로써 강대국의 야심을 약화시킨다. 또한 강대국은 상호관계가 최악에 도달했을 때 관계회복을 준비하며, 심화된 경제의 상호의존과 국제기구도 강대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의 영토확장은 현 단계에서 거의 통용될 수 없는 행위임으로, 국가 간의 경쟁은 국가 생존이 달린 경쟁은 아니다 이로 인해서 다극화는 더욱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기구 결성을 요구하고 있다.”(唐世平, 중국의 이상적인 안보환경 구축, 2003:88)

4.2.2. 지역적 목표

중국은 아 태지역의 국가로써 국가이익은 거의 아 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안전도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에 달려 있다

18) 일초다강(一超多強) ‘일초(一超)’는 미국을 지칭하며, ‘다강(多強)’은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와 EU, 일본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제적 기초가 타격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는 중국의 국가중심이며, 중국의 연해지역은 중국경제의 명맥이다. 이 연해지역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은 역지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미·일 관계가 적어도 적(敵)도 우군(友軍)도 아닌 관계를 바탕으로 중·미·일간의 안보협력의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중·미·일 삼각관계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삼각관계이다.

동시에 일본의 지역 패권 추구를 견제하는 것이다. 중일(中日) 간에는 역사문제,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조어대(釣魚臺)문제 등이 현안으로 남아있으며,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전수방위 헌법 개정, 자위대 병력의 해외 파견, 우경화(右傾化)와 아울러 ‘중국 위협론(威脅論)’ 등을 유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치적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군사력을 현대화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기반이 대부분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중국은 대륙국가 중의 하나로 육상의 안보 역시 중국 안보의 근본이다. 육상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러시아며, 이 러시아가 중국의 적대국으로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중 러 양국 간에는 천연적이 지리적 장벽이 없음으로 양국이 화합하지 못하면 모두 전략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고, 반대로 양국이 화합하면 전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중 러 관계의 중요성은 중 미관계의 중요성 못지않다. 과거 중소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동부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 하자크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과 <군사분야 신뢰강화 협정 국경조약(96. 4)>, <국경지역 군사력 감축협정(97. 4)>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차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12개국과 국경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0,28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최종 확정하였다

셋째,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국토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대만문제는 대만의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대만문제를 비롯한 티베트문제 등은 서방세력의 ‘서화(西化), 분화(分化), 인권(人權)’이라는 이름을 걸고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써 국가의 주권문제와 영토의 완전(完整), 국제적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관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을 가장 큰 장애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또는 더욱 양보하여 ‘일국양부(一國兩府)’ 형태가 되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륙과 대만이 통일되기를 희망하며, 통일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일익이라는 것을 미국에게 설득하는 것이 대만문제 해결의 선결과제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현실적 목표이나, 분단보다는 통일이 대세라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통일 후의 한반도가 어느 일방과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 다른 일방의 안보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4대강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 후의 한반도가 어느 일방의 세력범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4대강국의 지지를 받는 중립적인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중립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4대강국 간의 다자협력의 좋은 선행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인식이다 따라서 중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이상적인 안보환경은 중립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이다.

중미 양국이 지지해서 통일된 한반도는 중미 양국에게 이상적인 전략적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또한 중미 양국은 한반도를 ‘친중화’ 또는 ‘친미화’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唐世平, 중국의 이상적인 안보환경 구축, 2003:91)

다섯째, 동남아가 적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기초 위에서 동남아와 더욱 광범한 협력을 모색한다.

ASEAN은 동남아의 평화와 자유, 중립을 주장하면서 가입 국가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ASEAN과 <중국-ASEAN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협력동반자 관계를 확정하였고, 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하는 “10+3”의 구조 내에서 협력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무역은 갈수록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동남아가 중국의 경제적 명맥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기지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ASEAN 제국(諸國)에 바라는 것은 “평화와 자유, 중립”이다. 그리고 또 아 태지역에서 진정한 다극화를 이룰 수 있는 곳도 이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ASEAN 제국 중에서도 중국이 역점을 두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3국이다.

여섯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해 지역의 종교 과격주의, 분리주의가 중국 서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며, 중국은 필요 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일체화를 이룩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지역

의 안정과 경제 기초의 제공이다. 즉 회교과격주의의 역량 억제와 이 지역에서 이익 충돌로 인한 중 러 간 동반자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일곱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하는 국가이다 파키스탄과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인도와는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인도가 중국의 적대국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대 인도 전략의 핵심이다. 중국은 서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지위를 인정하며, 강력해진 인도가 민족주의(티베트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여덟째, 중동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은 걸프해역에서 패권을 장악했으며,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친미국가화 되었다. 이런 정황 하에서 중국은 ‘최소한의 힘의 균형(minimal balance of power)’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걸프 동안(東岸)의 이란과 더욱 폭넓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미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도 관계를 개선시켜나가고 있는 바, 이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5. 결론

중국의 대전략의 기본목표는 모택동과 덩소평시대의 ‘세계대국’에서 현 집단지도체제 하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으로 발전되었다 그 표현은 단지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을 뿐, 그 기본사상은 일치하고 있다. 바로 중국 영도층의 인식은 “중국은 유구한 역사·문

화를 가진 전통 있는 국가이며, 역사상 중국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서 공헌했고, 중국은 장기간 세계의 대국 중의 하나였다. 중국은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즉 인구, 영토, 자원 그리고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의지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택동시대부터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모택동의 일부 전략은 성공했으나 전략과 전략 사이에 많은 결함이 있었고, 상호 연관관계도 미흡했다. 일부 전략은 계속적으로 변화했고, 서로 모순 되었으며, ‘세계대국(世界大國)’의 목표에 적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중화민족의 부흥’을 중단, 후퇴시켰으며, 인위적인 파괴를 자행하였다

등소평의 전략체계는 모택동보다는 진일보 했다. 그는 모택동의 전략을 기초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고, ‘세계 대국’이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모택동의 일부 전략을 수정 또는 폐기했다. 등소평의 전략은 모택동의 전략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외교적으로 ‘4비1전’, 대외적으로 개방, 대내적으로 개혁으로 요약되는 등소평의 대전략 역시 시대의 제약을 받았고, 개선과 발전시킬 여지가 많았다.

중국의 제3대 집단지도체제는 등소평의 전략체계를 대승적(大乘的)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등소평이 강조한 ‘독립·자주와 비동맹 전략’에서 제3대 집단지도체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적시적절하게 공동발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고, 동아시아의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비1전’의 ‘4비(非)’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폐쇄성의 잔존으로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주동성이라든지, 앞을 내다보거나, 대국(大局)을 보는 관점 등이 결핍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자

극할 때도 집단지도체제의 본태적인 신중성으로 피동적으로 대응했고, 주동적인 것은 드물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전망'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상반되는 4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코끼리론¹⁹⁾, 자연성장론²⁰⁾, 무자격론²¹⁾, 중국붕괴론²²⁾ 등이다

결과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과 그 하위개념인 '평화와 안정'은 당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
- 19) 이 관점은 “중국이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초월한다는 것은 더욱 천일야화(千一夜話)와 같다. 다음 세기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호랑이’ 미국과 자웅 겨룰 수도 없고, 러시아, 일본, 인도 등과 같이 ‘이리’의 대열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더 더구나 중국은 누구에게나 먹혀지는 ‘양’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은 ‘호랑이’나 ‘이리’ ‘양’의 대열에서 벗어난 온화하고 덩치 큰 ‘코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팽명, <제4의 비석> 155쪽, 臺北 상지문화공사, 1999년 2월
- 20) 이 논리는 중국이 세계의 대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관건은 중국 자신의 발전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대국의 지위도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된다. 중국은 세계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이 발전만 하면, 언젠가는 세계대국이 될 것이다. (葉自成, <中國大戰略> 2003 51)
- 21) 이 관점은 중국의 현재 국내 문제가 너무 많으며, 각 방면의 여건은 낙후되어 있고, 현재는 세계대국이 될 자격이 없다. 이후에도 그럴 자격이 없다. 중국이 경제개혁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세계대국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즉 자신에게 유리한 안보적 우세, 군사와 경제력이란 하드웨어, 정치 사회 이론의 소프트웨어가 결여되어 있다. 성리군(盛利軍), <중국과 미국 비대칭 전략 동반자>, <계간(季刊) 워싱턴> 2002년 1월 6일
- 22) 미국의 계간지인 <차이니스 이코노미> 주간 스타드웨이어의 <중국의 꿈>에서 “중국경제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중국은 종이 용이다. 깊이 관찰해 보면 취약한 중국의 현상과 장기적 쇠퇴 조짐, 심지어 붕괴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달중·문정인, 2000,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역질서론」, 서울:도서출판 오름
- 최경식, 2004,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2004년 남성대 포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최영중, 2000,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서울:아연출판부
- 熊光楷, 2003, 「國際戰略與新軍事變革」, 北京:清華大學出版社
- 倪健民 외 1, 2003, 「中國國際戰略」, 北京:人民出版社
- 葉自成, 2003, 「中國大戰略」,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遲福林 외 1, 1996, 「中華人民共和國政治體制史」,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高屹 외 다수 편집, 1996, 「鄧小平時代的中國」, 北京:光明日報出版社
- 張幼文·黃仁偉, 2004, 「2004 中國國際地位報告」, 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三組研究部, 2002, 「中國改革開放史」, 遼寧·遼寧人民出版社
- 金炳鎬·青覺, 2004, 「中國共產黨第三代領導集體的民族理論與實踐」, 黑龍江:黑龍江教育出版社
- 中國國防大學 著, 박종원·김중운 역, 2001, 「中國戰略論」, 서울·도서출판 팔복원
- 唐世平, 2003, 「塑造中國的理想安全環境」,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共中央黨史, 1991, 「毛澤東文選」, 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黨史, 1991, 「毛澤東外交文選」, 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黨史, 1993,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黨史, 2000, 「鄧小平外交思想學習綱要」,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中共中央宣傳部, 2000, 「毛澤東鄧小平江澤民論思想政治工作」,北京·學習出版社
- 中共中央宣傳部, 1997, 「十五大報告」,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宣傳部, 2002, 「十六大報告」,北京·人民出版社
- 陳雪薇, 1998, 「十一屆三中全會以來重大事件和決策調查」,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 中共中央宣傳部, 2001, 「江澤民‘論三個代表’」,北京·中央黨史出版社
- 蔡賢偉, 1996, 「中國大戰略:領導世界的藍圖」,海南·海南出版社
- 張蘊嶺, 2000, 「21世紀 世界格國與大國關係」,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張蘊嶺, 2003, 「未來10-15年, 中國在亞太地區面臨的國際環境」,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慎明·王逸舟, 2004, 「2004년:全球政治與安全報告」,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汝信·陸學藝, 2004, 「2004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The Consider of China's Great Strategy Change in the Present Age

Choi, Kyung-Sik

The great strategy of China has been changing depending on the time, change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personality of leaders of the time. However, the process of the change was not the drastic change but has maintained the consistency through the course of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The great strategy of **Mao Ze-dong** was to have the objective in '**World Great Nation**' with the facilitation of the 'Surpass Strategy' and 'Autonomy, Independence and Alliance strategy' to successfully build up the political great nation, but he entrapped China's politics and economy into the point of no return by excessive war prepa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Inevitable World War', striving of rapid communism and other policies.

The Deng Xiao-ping era also targeted for '**World Great Nation**' but, unlike Mao Ze-dong, he had the foundation in the 'The Principle of Evitable World War' and undertook the 'Peace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Peaceful Coexistence' to build up the advantageous surrounding environment for China to focus on the economic construction as the core of the nation by establishing 'The Reform and Opening Strategy' and 'Three-step

Development Strategy' to have the successful soft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with the astonishing economic development.

The system of leader's group of China after Deng Xiao-ping succeeded the practical and realistic spirit of Deng Xia-ping, and based on the drastically grown economic strength, the great strategy of China is on the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This is one step further from the strategy of '**World Great Nation**' of the past that it embraces all the minority races in China, Chinese economic sphere, foreign citizens of Chinese origin as well as Chinese residing abroad.

China contemplates the time of making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in 2050, 100 anniversary of the birth of new China.

Key Words : The Great Strategy of China, The Great Reinvigoration of Chinese Nation, The aim of Strategy